

코스피	2642.36	코스닥	862.96
	(-9.93)		(-0.43)
금리	3.385	환율	1331.50
	(+0.026)		(-2.10)

예금금리 하락에 투자처 못 찾은 대기자금 증가 04

3.6% 4.0%

선거판 뒤집는 ‘딥페이크’... 세계 정부·기업 대응 고심

(딥러닝+페이크)

딥페이크 활용 허위정보 확산세 선거 앞둔 72개국 정치권 비상

구글·메타 등 20여 빅테크 기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차단에 합의 국내서도 워터마크 부착 등 논의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합성 딥페이크 영상. /뉴스시스

72개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허위 선거정보를 담은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 이에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AI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3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딥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최소 16개 국가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정보가 확산됐다. 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의 이미지와 음성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돼 실제와 분간하기 어렵다.

◆딥페이크 영상에 선거판 뒤집히

이 때문에 정치권은 딥페이크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딥페이크가

만든 가짜뉴스 잡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NBC 방송이 공개한 28초 분량의 전화 음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What a bunch of malarkey)”라는 문구를 활용하고 “투표는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에 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삽입한 조작 콘텐츠를 확산해 다수를 속였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확산됐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전 트위터)에는 기시다 총리가 포르

노물 대사를 읊는 등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30초짜리 영상이 유통됐다. 조작 영상이지만, 게재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비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차단·삭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99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집계한 결과 129건에 달했다.

실제 최근 틱톡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다.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라는 발언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였

던 2022년 2월 TV조선 제20대 대선 후보 방송 연설을 짜집기한 조작된 영상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구했고 방심위는 긴급소위를 열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문제는 완성도가 높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튀르키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선거판이 뒤집혔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이 야당 연합의 케말 클르차다를후 후보를 지지하는 조작된 영상이 확산했다. 가짜 영상이란 사실이 밝혀졌지만 선거는 끝난 이후였고 결국 해당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딥페이크 차단 합심에도 ‘역부족’

전 세계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딥페이크 영상 차단에 팔을 걷어부쳤다.

최근 오픈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 20개 빅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딥페이크를 감지해 꼬리표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야심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엔터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취재역량평가 (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④ 우대사항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 (2면에 계속)



4만여명 의사·의대생 거리에... 병원 의료공백 커진다

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여의도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공의 이어 전임의도 사직 준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올랐다. 정부가 집단 사직 이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를 앞둔 가운데, 의사와 의대생들 4만여명이 거리로 나서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2면)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들마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병원 떠난 의사들,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시작했다. 의협은 앞서 이번 궐기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주최측 추산 4만여명의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 자리 모여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

한 모든 의사가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

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 총리 “국민생명 불모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 ▲ 친명 지도부 모두 본선행... 임종석·홍영표 어디로? (사진 뉴스시스)

- ▲ 이상민 “전공의 3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천”
- ▲ 이재명·원희룡, ‘명룡대전’ 확정 후 격전지서 조우



- ▲ ‘민주 탈당’ 김영주, 4일 국민의힘 입당
- ▲ 이준석, 한동훈에 “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사진 뉴스시스)

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vs 의료계 “증원피해 결국 국민에”

>> 1면 '4만명 의사·의대생'서 계속

주최측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 정책 악용, 의사를 노예로 만들어”

정부, 공시 이후에도 명령 거부엔 의료법 따라 처분·형사고발 가능

이들은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

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기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전임의도 떠난 현장, 의료공백 커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절차 역시 곧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의 사직도 현실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전임의들은 병원과 재계약 없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전공의보다 숙련된 의사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떠나면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

은 37%, 전임의 비중은 16%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공의를 대신하던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가면 남은 교수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수술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1면 '메트로경제와 함께'서 계속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카페(아랑), 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 간 :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3월 29일 도착분) 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가능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3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
- ③ 내용 :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

·면접(실무 면접, 임원 면접)

- ① 일자 : 2024년 4월 11일(목)~12일(금)
- ②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③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4월 17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02-721-9851

오늘 의대증원 신청 마감... 대부분 정원 2배이상 요청할 듯

교육부, 미신청시 증원의사 없음 간주 일부 대학서 총장-의대학장간 갈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예정대로 4일 완료될 전망이다.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의대 증원 기회를 두고 대학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부분이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본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간호학과나 첨단학과 등 정부가 학과 정원 증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진하면서 신청하지 않은 곳에 증원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이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한 내 의대 증원 신청을 하는 분위기”라며 “이번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년간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일부 지역 대

학은 다소 무리해서 증원 규모를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정부 계획대로 5058명으로 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된다.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9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증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

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본부는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지만, 의대 학장들과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제출 등으로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에는 부담이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3%가량이 휴학계를 낸 셈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4일 마감되는 2차 조사에서도 대학들이 총 2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국 의대 보유 40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hj@

을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 투입

산업부, 신규과제 4274억 ‘역대최대’ 2451억 규모 신규과제 1차공고 실시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해 신속 집행하는 등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

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4월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늄(TiAl1)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는 586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는 전년 신규투자(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회로소재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다이올 핵심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개발

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2023~2030년, 9352억원)’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영상 시콘텐츠 논란 확산... “새로운 도구” vs “돈벌이 악용”

숏폼 제작 생성형AI ‘소라’ 도마위
일부 공개에도 시장 전반 영향
업계 관계자들 기대-우려 교차



“여러 마리의 거대한 매머드가 눈덮인 들판을 밟으며 다가오고, 걸을 때 긴 털은 바람에 가볍게 날리고, 멀리서 눈 덮인 나무와 산, 한낮의 햇살과 몽게구름, 저 멀리 높은 태양이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낮은 카메라 시야는 아름다운 사진과 심도로 커다란 털매머드를 멋지게 포착합니다”라는 텍스트를 입력하자 소라가 만들어낸 동영상 캡처. /오픈AI

오픈AI가 지난달 공개한 숏폼 영상 제작 생성형 인공지능(AI) ‘소라(SORA)’ 이후 유튜브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새로운 ‘도구’로써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허접한 저질 콘텐츠를 난립을 경고하는 이도 있다.

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오픈AI의 소라는 명령어로 1분 내외 고화질 동영상을 제작하는 생성형 AI다. 그동안 동영상 생성형 AI는 단순히 그림 속 일부가 움직이는 수준으로 20초를 넘지 못 했고 선택 가능한 맥락에도 한계가 있었다. 반면 소라는 현실에서 시간 외 제한은 없는 것처럼 보이며 맥락적인 영상을 만든다. 오픈AI는 해당 기술을 ‘고위험 기술(RED team)’으로 분류, 오용 가능성을 연구 중

이며 외부 공개를 제한 중이다. 그러나 공개된 일부만으로도 거대한 파괴력을 가져 중국 등에서는 관련 응용사업, 자문 서비스 등을 한다며 사기범죄가 유행해 중국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콘텐츠 편집자인 박영인씨는 소라에 대해 “어린 시절 꿈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8년차 유튜브 영상PD인 박씨는 대학교에서 연극 영화과를 전공하고 한때 애니메이션 감

독을 꿈꿨다. 자신의 애니메이션 작업물을 올리는 채널을 운영 중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채널에는 네 개의 영상이 전부다.

박씨는 “만약 실제 기술이 공개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결국 모든 작업의 마무리는 인간의 손

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유튜브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다양한 개발언어를 이용한 마구잡이로 제작되는 영상이 있었는데, 소라를 본 후 확신했다. 만약 소라가 세상에 제한없이 공개된다면 유튜브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015년경 논란이 일었던 ‘엘사 게이트(Elsa Gate)’를 예로 들었다. 엘사 게이트는 디즈니 겨울왕국의 엘사, 마블의 스파이더맨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들이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무더기로 업로드 된 사건이다. 해당 영상의 타깃 시청층은 아동인데, 비슷한 내용과 제작방식, 매크로(macro)를 이용한 댓글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의 돈을 노린 소행으로 의심됐다.

A씨는 “엘사 게이트가 결국 대형 광고주의 보이콧으로 유튜브의 영업이익을 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유사한 애니메이션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애니메이션들의 실제 제작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유튜브

로 돈을 벌자는 내용의 강의에서는 AI 툴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생산하는 영상을 제작하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에릭 호엘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는 생성형 AI로 제작됐으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동용 콘텐츠들에 대한 문제를 칼럼으로 공개했다. 그는 아동용 유튜브 채널로 설정된 ‘Kids Songs and Nursery Rhymes - RV App Studios’ 등 여러 채널이 겹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유아동용 콘텐츠 채널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눈 뒤 춤을 추고 그대로 끝이 나는 허접한 AI 채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채널 최근 6개 영상은 최소 25만회, 최대 1600만회에 이른다. 해당 영상은 챗GPT를 이용해 유아 교육용 스크립트를 제작한 후 해당 내용을 어도비 익스프레스(Adobe Express)로 구현한 것이다.

호엘 교수는 “유아동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 시장과 달리 시청자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무의미하고 목적없는 저질 콘텐츠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차, 美 판매량 역대 최대... 친환경 기술 경쟁력 주효

지난달 미국시장 판매량 6만대 돌파
친환경차 7% 성장세 기록... 실적 호조



현대차 투싼.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정측면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앞세워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는 등 오랜기간 축적해 온 독자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특히 첫 하이브리드 시스템 양산 이후에도 꾸준히 성능개선과 효율 증대를 도모하며 2020년에는 180마력을 갖춘 1.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자동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6만 341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친환경차는 7% 성장세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투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280%, 투싼 하이브리드(HEV)가 29%, 코나 일렉트릭(EV)이 15% 각각 증가했다. 투싼은 8%, 팰리세이드는 16% 판매량이 늘었다. 현대차의 2월 소매판매는 5만 5341대로, 전

년 대비 5% 증가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격전기인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친환경차의 기술 경쟁력 덕분이다.

지난해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전문지들은 토요타보다 현대차·기아의 하이브

리드카를 더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독일 아우토빌트는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보다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라브4와의 비교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병렬

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쏘나타·K5 하이브리드를 공개한 이후 꾸준한 성능개선을 통해 다양한 차급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크고 작은 배기량의 엔진과 결합했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DCT 변속기를 장착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에는 180마력을 자랑하는 1.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직접 개발했다. 지난 8월 출시한 싼타페 하이브리드에는 현대차 그룹이 직접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처음으로 탑재됐다.

랜드파커 현대차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와 PHEV 판매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모델들이 인정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 7.7리터... 55년만에 최저

술 소비 점진적 감소... OECD 21위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이 5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대상 27개국 중 1인당 음주량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술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7.7리터(ℓ)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프랑스(10.5ℓ·공동 8위), 영국(10.0ℓ·12위), 미국(9.5ℓ·14위) 등 서방 주요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스웨덴(7.6ℓ)·노르웨이(7.4ℓ)를 비롯해 데킬라 산지인 멕시코(5.1ℓ)보다는 소비량이 많았다. 일본(6.6ℓ)에 비해서도 앞섰다.

라트비아(12.2ℓ·1위)와 리투아니아(12.1ℓ·2위), 에스토니아(11.1ℓ·4위) 등 발트3국이 술 소비가 많았다. 또 체코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973년에 16.8ℓ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7년(10.2ℓ)까지 매해 1ℓ를 초과했다. 이후 8~9ℓ대를 오간 뒤 2020년

(7.9ℓ)에 1966년(7.6ℓ) 이후 처음으로 7ℓ대로 내려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더 줄어들어 55년 사이 최소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의 대면모임 수가 급감한 탓에 2020년과 2021년 음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2022년 소비량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반등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 술 소비가 지난 70·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1981년(14.2ℓ)과 비교해 40년이 흐른 2021년에 절반(-45.7%) 가까이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짜뉴스 판별할 수 있는 인식개선 중요”

>> 1면 ‘선거판 뒤집는 댄페이스’서 계속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 논의에 들어갔다. 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틱톡 등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댄페이스 영상에 워터마크 부착하게 하고 총선 폐지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만들거나 유통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댄페이스콘

텐츠에 의무적으로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워터마크 표시를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이같은 조치가 댄페이스 콘텐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워터마크도 기술적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검열을 통한 선거수단으로 역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과 함께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예금금리 더 떨어져 연 3%대... 투자처 찾지 못한 대기자금 ↑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11.4조 요구불예금 10.8조 전월比 5배 ↑ 정기예금 금리 연3.83%서 0.19%p ↓ “대출·예금금리 함께 큰 폭 하락세”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고 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뉴스시스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4조8684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22일보다 1조2420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은 한달 전 42.4%에서 6.6%로 35.8%포인트(p) 감소한 반면 연 3%대 정기예금 비중은 같은 기간 52.8%에서 88.2%로 35.4%p 증가했다.

금리도 같은기간 연 3.83%에서 3.64%로 0.19%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비은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4.20%, 연 4.11%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도 전달과 비교해 각각 0.17%p, 0.09%p 떨어졌다.

예금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JB다 이팩트예금이 연 3.80%를 제공 중이다.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3.72%, 연 3.70%를 제공했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자금은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등 정책금리가 인하되면 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기 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 상품이다. 기본금리 2.80%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과 KDB산업은행의 KDB HI입출금통장은 각각 연 2.30%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비트코인, 9000만원 전고점 찍어... 단기조정 후 1억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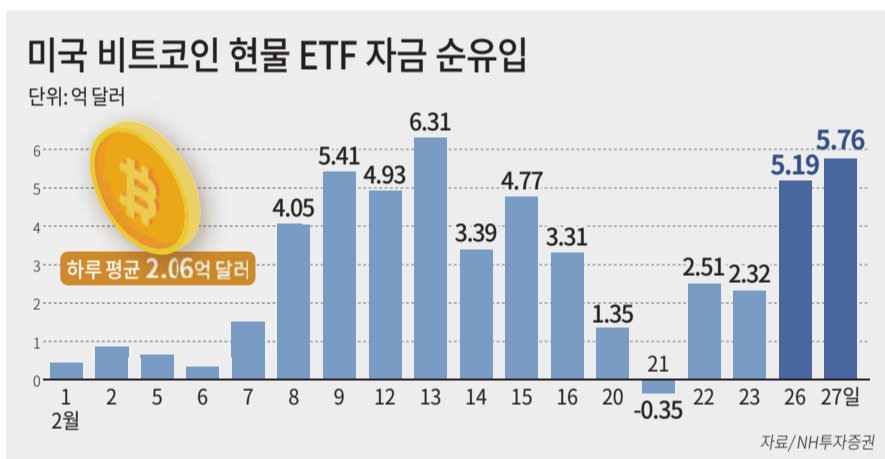
8000만원대서 지속 거래 중 현물 ETF 승인으로 유입 자금 ↑ 가상화폐 전체 시총 2조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과속지세다. 지난 2월에 만 40% 이상 급등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뚫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린 돈이 몰리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어, 단기조정 후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3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원화 시장 기준 직전 전고점(2021년 11월 9일)인 8270만원을 약 27개월 만에 넘어선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새롭게 기록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6만



20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달 29일 한때 6만4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21년 11월 역사적 고점(6만9000달러)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월에만 40% 넘게 상승하면서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글로벌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일 기준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2700억 달러(약 3031조6000억원)로 가상화폐 시총이 2조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 시총은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2조7000억 달러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 원인으로 오는 4월 반감기 도래와 ETF 승인을 꼽고 있다.

비트코인 유통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는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게 된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2020년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유입 자금도 많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인 지난 1월11일부터 2월27일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평균 2억 6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입 됐고, 지난달 26일과 27일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5억1900만달러, 5억7600만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침체기)가 지나고 크립토 스프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 조정을 거친 후 1억원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4월 8500만원을 경신 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기간이 많이 앞당겨졌다”며 “단기 조정으로 8500만원까지 하락 후 다시 상승 전환할 경우 연내 1억원 돌파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의 제프 캔드릭 FX리서치 헤드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운용사들의 매도세가 잠잠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말 10만 달러를 기록 후 내년 말에는 두 배인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음 승인 대상으로 꼽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5월에 미국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피델리티 등 최소 10개 업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주택공급·금리, 시장 주요 변수

KB금융,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5년까지 최저점이나 회복 예상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가 최저점이 될 것이라 인식이 강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주택공급과 금리를 꼽았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시장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PB의 각 79%가 하락을 전망했다.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경우 1~3% 하락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PB는 3~5% 하락을 점쳤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별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장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3분의 1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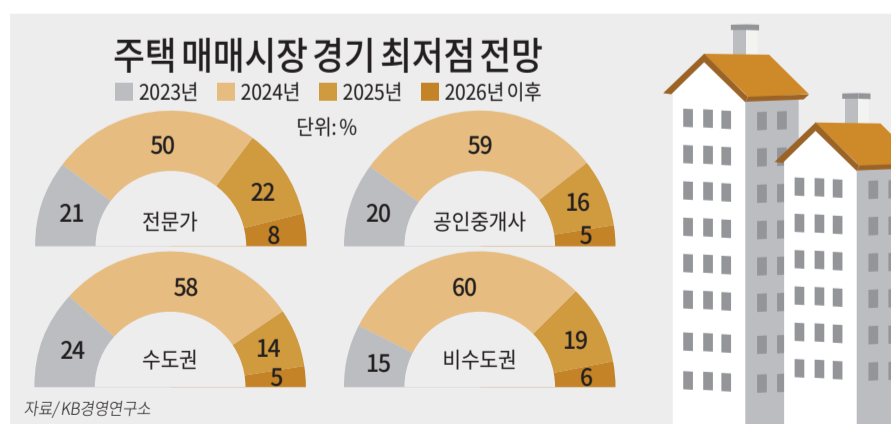
특히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52%, 공인중개사 53%로 많았다.

주택 매매시장 경기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2024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2024년이 경기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지만 2023년이 최저점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가 진단한 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지난 해부터 주택공급 감소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PB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인중개사 그룹에서 금리와 대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 PB는 공통적으로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 재건축을 꼽았다.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는 2023년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재건축은 꾸준히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번 침체기에는 사업진행이 지연되며 오히려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다!다!우
기다!♡

하나뿐인 내 편,
임영웅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웅은 하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與 영남 초선의원, 감산 페널티에도 중진 이기기 어려워

254개 지역구 중 193개 공천 마무리
영남 현역의원 56명 중 33명 본선행
현역의원, 단수·우선추천 차출도
조용한 공천?... 예비후보자 반발 속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를 확정해가는 가운데, '뒷발' 영남에서는 중진의원들이 다수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현역 교체율이 낮아서인지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3일 현재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중 193개(75.9%)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경선을 하거나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짓지 못한 곳이다.

이 가운데 영남 지역구 현역의원 56명 중 33명(58.9%)이 단수·우선추천, 경선 승리를 통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11명은 경선이 예정됐거나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현역의원 25명 중 52%(13명)가, 울산 및 부산경남(PK) 지역에선 현역의원 31명 중 64.5%(20명)가 공천을 받았다. TK 현역의원 중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4명, PK지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는 6명이다.

또 초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페널티 15%까지 적용했음에도 중진을 상대하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공천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선에서 패배한 영남 지역구 현역의원 6명이 모두 초선의원이다. 반면 3선 이상 영남 중진 16명 중 11명은 공천이 확정됐고, 5선 김영선 의원만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처럼 현역 교체율이 낮다보니 국민

의힘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무음공천'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현역의원을 단수추천(단수공천)하거나 우선추천(전략공천) 형식으로 차출하면서 이 같은 반발이 생겨난 경우가 많다.

울산 남구갑의 경우 현역인 이체의 의원이 자신이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상황에 따라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무소속 출마의 여

지를 남겨 줬다. 울산 남구갑은 아직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곳이다.

조해진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경남 김해을도 기존 당협위원장 및 예비후보의 반발이 극심한 지역이다. 공천 반발로 인해 조 의원은 지역에서 하려던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도 했다.

또 김성우 전 김해를 당협위원장 등 5명의 예비후보들은 공관위가 경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인 추대 후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들은 지난달 24일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현역의원이 단수추천된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진주을도 단수추천 기준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있었고, 이날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진해는 이 의원의 후배인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우선추천 후보자로 선정되자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경북 역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단수추천을 받아, 김장주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김경원 예비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경기 고양정의 경우 공관위가

김현아 전 의원을 단수추천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김용태 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김용태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은 것은 한동훈 비대위였다.

이에 김현아 전 의원은 즉각 지도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예비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김현아를 빼놓고 일산에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추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번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도 예비후보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 부의장의 입당 소식이 알려지며, 그가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기남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후보에게 전략 공천이라는 수를 쓴다면 항거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범야권 비례대표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창당대회서 당명 채택건 등 처리
윤영덕·백승아 2인체제로 운영
"尹 정권 심판... 반드시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 3일 '더불어민주연합'을 당명으로 하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정식 당명으로 제안된 '더불어민주연합 당명 채택의 건'을 비롯해 '강령 및 당헌 제정의 건', '당대표 선출의 건' 안건이 처리됐다.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동대표 후보로 추천된 윤영덕 국회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인 백승아 전 교사가 추대됐다.

윤영덕 의원은 공동대표 수락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대와 국민의 절절한 명령을 무겁고도 엄숙하게 받들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민생파탄 상황에서 일상의 행복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연합 공동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공동대표는 "검찰독재와 언론탄압, 부자감세와 서민부담 증가, 국민을 외면한 채 무능과 독단으로 일관하는 국정운영, 해묵은 이념논쟁 등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삶과 역사의 정의,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패악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그들 모두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도한 폭압에 맞서 위대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역사적 정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철폐 및 민주주의의 정치 회복 ▲노동권 보장, 생명존중, 불평등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내일이 더 밝게 복원 등을 제시했다.

백승아 공동대표도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몰상식의 국정을 목도했다"며 "오만과 독선, 불통의 폭주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은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공동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더불어민주당연합이 민주개혁진보연영 승리에 밀려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민생, 반민주, 반미래 정권에 대해 통합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시민사회 대표로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폭망,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퇴행을 막고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

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려면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꿈, 그리고 지금보다 더 퇴행하게 해선 안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자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어떤 시기에 갈 것인가가 약간씩 다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첫 출발점, 바로 더불어민주당연합 출범"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athfinder@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 의원과 접촉하며 '세불리기'

총선 광주출마 기자회견 돌연 취소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일 광주광역시

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전날(2일)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3일로 예정했던 저의 광주출마 기자회견을 잠정연기한다"며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서 "저의 기자회견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하위 평가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 의원들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3일 <메트로경

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판을 더 크게 만드려고 한다. 민주당의 부정 공천에 희생당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세력 규합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미래와 어떻게 연합하고 세력을 합쳐 나갈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장 이낙연 공동대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진짜 민주당을 정체성으로 갖는 세력들

이 규합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에 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는 '민주연합'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새당을 차린 새로운미래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한 곳에 규합하는 텐트가 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유튜브에 빠진 보험사 '쉽고 재밌는' 콘텐츠戰

DB손보, 유튜브 구독자 34.5만명
보험업계 최초 '실버버튼' 획득

삼성화재, 보험챗 3개 시리즈 통해
사회초년생 의무보험 상식 알리

KB손보, 펫보험 시리즈 7회 공개



유튜브가 보험사들의 주요 소통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보험업계가 유튜브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유튜이미지

보험업계가 유튜브 콘텐츠 전쟁에 뛰어 들었다. 유튜브가 보험사들의 주요 소통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보험을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는 포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유튜브 마케팅 전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DB손해보험 유튜브 채널 '프로미TV-DB손해보험'의 구독자는 34만5000명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이미 구독자 30만명을 달성해 보험업계 최초로 '실버버튼'을 획득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주요 콘텐츠를 1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벤트 및 신상품 소개, DB손해보험의 주요 소식을 정리한 'DB손해보험 NOW' 등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특히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영상은 공개한 지 3주 만에 조회수 114만회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계 유튜브보다 DB손해보험은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관련 이벤트 영상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부터 유튜브 시리즈 '보험챗'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업계 당기순이익 1위인 삼성화재이지만 2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는 2만8800명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험챗은 삼성화재의 본업인 보험을 쉽고 간단한 '답소(chat)'를 통해 설명한다는 의미다. 사회초년생 역할을 하는 진행자의 생생한 질문에 직원이 답하고 시청자들이 실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쉬운 언어로 재해석해 전달한다. 보험챗의 첫 주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다. 삼성화재는 현재 '보험챗 EP.3'까지 공개

했고 3개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1만 8400회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 이해도를 높여 일상 속 보험의 가치를 알리고 삼성화재의 우수한 상품, 서비스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2월부터 'KB 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6개월 기념 유튜브 콘텐츠 '프로페셔널' 시리즈 공개했다. 2월 기준 KB손해보험의 유튜브 구독자는 11만6000명으로 DB손해보험에 이은 손보업계 2위다.

KB손해보험이 자체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페셔널은 본인의 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펫라이프 콘텐츠다. 영상에는 셀럽 출연진의 반려동물이 사회자가 돼 반려동물의 질문에 대답하는 '펫터뷰', 반려동물을 위해 준비한 '내 펫에게 주는 선물' 등의 내용이 담겼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월까지 총 7개의 프로페셔널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영상 시청 후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2만회가 넘는 정도로 인기가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직업과 일상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영상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평소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이달 첫째 주 전국 10곳서 714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건본주택 '더샵둔촌포레' 등 2곳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7146가구(일반분양 56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타파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

샵둔촌포레', 대전 동구 성남동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 2곳이 오픈 예정이다.

에스테크건설·이엔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 전용면적 52㎡, 58가구 규모다. 단지는 후분양아파트로 분양대금 완납 후 3월 중 입주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서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9개동, 총 1213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39~84㎡ 77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김대환 기자 kdh@

“사회공헌 등 지역주민과 소통이 성공 비결”

인터뷰 새마을금고를 가다

손인창 중곡1동 이사장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을 겪으면서다. 중앙회가 쇠신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포부도 남다르다. '우리동네 금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주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찾아간다. <편집자주>

손인창 서울 광진구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쇠신 또한 상생에 있다는 판단이다.

◆ 중곡1동 새마을금고

중곡1동 새마을금고의 총조합원수는 1만2000명.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3.8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진행한 경영종합경영 지표 평가는 2등급을 받았다. 총자산은 약 2300억원으로 금융자산과 공제가 각각 1593억원, 700억원이다. 올해 대당금은 5%로 책정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중간정도 규모의 금고다.

지난해 중곡1동 새마을금고는 '상복' 많은 해였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설립 46년만에 처음이다. 표창을 받은 배경은 손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20~2021년도 성적표가 좋아서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광진구에서 종합지표 1등을 차지했다. 광진구청장 표창과 오세훈 서울시장 감사패도 수상했다.

그간 중곡1동 새마을금고는 예대율 40% 안팎인 소형 금고였다. 예대



손인창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난해 축제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준 우산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산 기자

2년 연속 광진구 종합지표 1등
작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표창

부동산 비중 축소, 사업실적 집중
사회환원 등 통해 주민소통 강화

올이란 금융사가 가진 예금잔액 대비 대출한 자금의 비율이다. 예대율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이 증가하지만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손 이사장은 취임 후 예대율을 80%까지 높이며 영업 확장에 집중했다.

손 이사장은 "3년 전 취임 후 실적 높이기엔 몰두했다.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사업실적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며 "지난해 어려운 시기에 적자를 본 금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곡1동 새마을금고는 수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 지역 사회와 소통이 '성공 비결'

손 이사장은 단순 홍보만을 통해 영업력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 지난 2020년 취임 후에는 코로나19가 확산했다. 중곡1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역기와 차량을 기부했다.

사회 환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취임 4년차를 맞이하면서 ▲김장행사 ▲반찬나눔행사 ▲취약계층지원 ▲좁도리운동 ▲장학금지급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인근 '중곡제일시장'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는 우산과 앞치마를 구매해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장학사업은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그간 관내 학교장, 동사무소 등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곡1동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려고 한다.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실질사업대출, 소상공인의 생활필요자금 대출 등이다.

손 이사장은 "서울이 대도시라지만 동단위로로는 소문이 빠르다. 항상 조합원들이 금고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로만 하는 쇠신은 안 된다. 주변에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공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정중표 DB손해보험 사장(앞줄 오른쪽)과 레티타딩(Le Thi Ha Thanh) VNI손해보험 이사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해외 주주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DB손보, 베트남 손보사 최대주주 됐다

VNI·BSH 2개 손보사 인수계약
베트남·인도차이나반도 발판 마련

DB손해보험이 베트남 손보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DB손해보험은 베트남 손해보험사인 VNI(Vietnam National Aviation Insurance), BSH(Saigon-Hanoi Insurance) 손해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과 6월,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10와 9위인 VNI와 BSH 손해보험사 인수 계약 체결을 진행

한 바 있다. 올해 초 최종 계약을 마무리해 베트남 내 2개 손해보험사를 추가로 인수했다.

이번 인수 계약체결을 통해 DB손해보험은 베트남 보험시장 내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또한 글로벌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VNI와 BSH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의 광범위한 보험사업 경험과 전문성, 앞선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에서 상위사로의 발돋움 계획을 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하나은행 수출중기 우대금융 5000억 규모 실시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약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수수료 우대 등 수출시 겪게 되는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기업은 수입보험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배터리3사, 兆단위 투자 이어간다 설비·인재 등 중장기 성장성 제고

LG엔솔 북미 등 투자기조 지속
삼성SDI 국내외 생산능력 확충
SK온 올해 7.5조 설비투자 계획

국내 배터리 업계가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배터리업계가 잠정적인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공급망 확보와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매진한다는 전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한 초기 소비가 끝났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까지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배터리 업계는 중장기 성장을 위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과 유

사한 규모인 약 10조9000억원의 생산시설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회사는 GM 합작 2공장인 스텔란티스·현대차 합작공장 등 북미 지역 내 생산거점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매진한다. 다만 투자 기조는 유지해 나가되 상황에 따라 투자 속도 조정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I는 지난 1월 울산시와 협약해 1조원 규모의 양극재 및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 소재 양극재 자회사 에스티엠을 통해 양극재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충해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의 생산 능력도 높일 전망이다. 삼성SDI는 원통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말레이시아에 2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는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올해부터 '프라임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온은 지난2월에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7조5000억원의 설비투

자를 예고했다. 대부분의 캐팩스는 북미 투자에 집중될 예정이다.

업계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치열하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지난 2023년 12월 신설 부서인 전고체 배터리 전담 조직 'ASB(All Solid Battery) 사업화 추진팀'을 꾸리고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이를 통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각종 배터리 개발 직무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할 예정이다.

SK온은 설·설비·공정·부품 등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서 개발 경력 직원과 신규 박사 총원에 나섰다.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R&D(연구·개발) 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차세대 배터리 모듈·팩 구조 설계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경력 사원을 뽑는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설비투자와 우수 인재 확보에 힘쓰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향후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대비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j@metroseoul.co.kr



프리즈 LA에 마련된 LG 올레드 라운지

/LG전자

LG전자, 美 LA에 '올레드 라운지' 조성

“올레드 TV만의 혁신적 가치 확산”

신형 LG 올레드 에보가 예술 작품으로 처음 선보인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LA 산타모니카 공원에서 열린 '프리즈 LA' 아트페어에 'LG 올레드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프리즈는 '아트바젤(Art Basel)'과 함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다. LG전자는 지난 21년부터 프리즈의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하며 '예술에 영감을 주고, 아티스트가 선호하는 올레드 TV'라는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예술에 관심이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LG 올레드 라운지는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로 6점 벽화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공간이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셰퍼드 페어리와 협업해 150㎡ 규모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작가와 협업해 작품 감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었다. LA 길거리를 연상시키는 컬러에 곳곳에

벽화처럼 올레드 TV를 전시해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보여준다.

특히, 공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작가의 대표작 '상처받고 잘못된 길(Damaged Wrong Path Mural)'은 77/65형 올레드 에보 2대를 이질감 없이 벽화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마치 하나의 초대형 벽화로 그려진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작가는 이번 협업에 대해 "의미 있는 주제를 통해 사람들 사이 도전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라며 "LG 올레드 TV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 예술의 표현을 새롭고 보람 있는 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오혜원 상무는 "예술에 영감을 주는 'OLED Art Project'를 통해 작품을 보여주는 디지털 캔버스이자 그 자체로 예술의 일부가 되는 LG 올레드 TV만의 혁신적인 가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갤럭시 북4' 시리즈, 국내 판매 10만대 돌파

삼성전자 전작 대비 한달이상 앞당겨
주요행형 요인에 AI 퍼포먼스 꼽아

삼성전자가 모바일 AI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PC인 갤럭시 북4 시리즈까지 성공시켰다. AI 붐이 전세계 세트 산업을 부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주도권을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월까지 국내에서 갤럭시 북4 시리즈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1월 2일 출시 후 2달여 만이다.

이번 판매 기록은 갤럭시 북3 시리즈와 비교하면 6주나 빠른 수준이다. 갤럭시 북3도 가벼운 무게와 성능 등으로 호평을 얻으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던 바, 갤럭시 북4 시리즈가 기록을 훨씬 넘어섰다.



갤럭시 북4 시리즈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4 흥행 요인으로 최신 프로세서를 활용한 AI 퍼포먼스를 들었다. 실제로 갤럭시 북4 시리즈 판매량 중에서는 인텔 울트라 코어를 탑재한 갤럭시 북4 프로가 70%나 비중을 차지했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인텔이 처음으로 내놓은 NPU 적용 프로세서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다양한 AI 기능을 자체적으로 연산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갤럭시S24와 함께 공개한 갤럭시 AI를 활용해 갤럭시 북4시리즈에도 연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노트북 PC용 외장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와 '인텔 코어™ Ultra 9'를 탑재한 '갤럭시 북4 울트라'의 가장 상위 모델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사전 판매한다. 더블 스토리지와 '삼성 케어플러스' 12개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Home & Student' 사용권 혜택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車업계, 무이자 할부 등 구매혜택 강화

르노코리아 QM6 최대 240만원 혜택
한국지엠 무이자·초저리 등 할부 지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저금리·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진행한다.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소비가 감소세를 맞으면서 완성차업체들이 판매량 증진을 위해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에 대해 최대 240만원, 중형 세단 SM6 TCe300 무이

자 할부 등 고객혜택을 강화한 판매조건을 내놨다.

QM6는 지난 달부터 진행 중인 'QM6 누적 판매 24만대 돌파 기념' 혜택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QM6는 24만대 돌파 기념으로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 아이폰과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고객 선호에 따라 최저 3% 저리 할부(36개월)부터 최대 240만원 구매 혜택까지 판매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형 SUV XM3는 영업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에 따라 최대 1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선수율 30%)을 제공하며, 고객이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선택할 시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초저리 프로그램을 통해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슈퍼 초저리 프로그램을 통해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SK온, 'Advanced SF 배터리' 공개

인터배터리 2024

충전 속도개선 등 다양한 신기술 소개

SK온이 보다 진화된 배터리 급속충전 성능을 선보인다. 기존의 SF배터리(급속충전) 대비 에너지 밀도는 높으면서 급속충전 성능은 유지한 신제품을 통해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SK온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Advanced SF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SF배터리는 SK온이 지난 2021년 처음 공개한 하이니켈 배터리다. 18분 만에 셀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Advanced SF 배터리는 이보다 에너지 밀도는 9% 높으면서 급속충전 시간은 유지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SK온은 특수 코팅공법을 통해 음극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음극 정렬 공법을 적용해 리튬이온 이동경로를 단축했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 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석 기술로 최적화된 급속충전 프로토콜까지 구현해 Advanced SF 배터리를 개발했다.

SK온은 급속충전 시간을 18분에서



Advanced SF배터리

/SK온

15분으로 단축한 SF+ 배터리도 선보인다. SK온만의 이중 레이어 구조에 고용량 실리콘과 저저항 흑연을 배치해 리튬이온 이동 거리를 줄이고, 이동 속도는 높였다. 고용량인 실리콘은 이동 거리를, 저항이 작은 흑연은 이동 속도를 각각 개선시킨다.

저온 성능을 개선한 '윈터 프로'(Winter Pro) LFP 배터리도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는 저온(-20℃)에서 주행 거리가 50~70%로 급감한다. 반면 윈터 프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19% 높이고도 저온에서 충전 용량과 방전 용량을 기존 LFP 배터리 대비 각각 약 16%, 10% 늘렸다.

SK온 관계자는 "전시관을 찾은 관객들은 SK온이 지닌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개발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기술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기업 DX 가속화에... 클라우드 업계, 두자릿수 공개 채용

(디지털전환)

3월까지 상반기 신입·경력 채용
클라우드 관련 경력직 채용 '집중'
IaC 구축운영·블록체인 등 선발

길어지는 취업 빙하기에도 클라우드 관련 업계는 기업의 디지털전환(DX)의 가속화로 채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클라우드 및 DX 관련 기업들이 3월까지 상반기 신입 및 경력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대부분 기업이 두자릿수 고용을 예고했고, 일부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 관련 경력직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DX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5조 8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성장했다. 2020년 4조 원대를 돌파한 후 2년만에 4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공급 기업은 2020개로 전년 대비 14.5% 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공급기업 수는 SaaS가 1,324개(65.5%)로 가장 많고, IaaS 419개(20.7%), PaaS 152개(7.5%), CMS 65개(3.2%) 순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 '각'의 전경. 서버로 빼곡히 들어찬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이다. /네이버

에도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산업 전반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문화·기술적 트렌드에 의해 클라우드 공급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계속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클라우드 업계는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빙하기로 칭해지는 IT 업계지만 클라우드 업계는 예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체험형 인턴십과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인턴십은 4월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글로벌 환경에서의 DX, AI 기술/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스마트 빌딩, 시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AI 서비스 관련 서비스 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험형 인턴으로써 3개월 근무한다. 인프라 엔지니어링(~3월6일)과 AI 모델러(~3월11일)는 경력채용으로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발한다. 인프라 엔지니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구축, Terraform, CloudFormation 등 IaC 구축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올해 상장 예정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오는 3월 18일까지 두자릿수 규모 경력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IaaS, PaaS, CMP 등) 제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 클라우드 관제 및 운영관리 등 클라우드 사업 전 과정에 참여 중이다. 채용 분야는 ▲S/W개발 ▲블록체인 ▲클라우드 컨설팅 ▲클라우드 기술지원 ▲기술영업 등 8개 부문 24개 직무에서 총 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코리아엑스퍼트(THE KE)는 지난 14일부터 신입·경력 상시채용을 시작했다. ▲IT 솔루션 영업 담당자 ▲DT 솔루션 엔지니어 ▲의사결정 자동화 솔루션 엔지니어 ▲자바(Java) 풀스택 개발자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등이다. 코리아엑스퍼트는 국내 최호를 엔진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안/인증, 클라우드, DX 등 신사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B2B 핀테크 & SaaS 전문 기업 웹케시그룹도 3월 10일까지 2024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웹케시, 쿠론, 비즈플레이, 비플페이, 글로벌 5개 부문의 9개 직무에서 두자릿수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입사하게 되며, 3개월의 인턴 기간 이후 평가 결과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채용 직무에 따라 웹케시, 쿠론, 비즈플레이, 비플페이, 웹케시글로벌로 소속이 확정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97%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 받는 데에는 자원 확장과 축소의 유연성과 효과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 AI 적용,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의 추가 접목도 용이해 최근 기존 서버 인프라 등을 보유한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고수하던 기업들도 빠르게 전환에 합류 중이다. 여러곳으로 분산 저장되는 클라우드 데이터 특성상 재해에도 언제 어디서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장점만 쏙쏙... 럭셔리·스포티·성능 다 갖춘 '완성체'

자동차 시승기

벤츠 CLE

넓은공간·스포티한 주행 모두 충족
서스펜션 등 필요에 따라 세팅 바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탑재
추후 순정 내비게이션에 티맵 적용

메르세데스-벤츠가 2도어 쿠페형 세단에 2가지 과제, 럭셔리와 스포티를 모두 구현했다. CLS와 E클래스 쿠페, C클래스 쿠페까지 모두 합친 CLE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최근 CLE를 출시하고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외곽을 거쳐 오는 왕복 100km 가량 거리를 달렸다.

킬리아 텔렌 벤츠 코리아 부사장은 시승 행사에 앞서 넓은 공간과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CLE는 외관으로 보면 E클래스 쿠페와 거의 유사하다. 4.8m 가량 길이에 1.86m 전폭은 거의 같다. 실제 내부 공간과 직결되는 축거 숫자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눈에 띄일만큼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덕분에 E클래스 쿠페 장점도 그대로다. 운전석에 앉으면 E클래스보다도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보조석까지 손이 닿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엠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지면서 CLS 수준 고



디 올 뉴 CLE.

/메르세데스-벤츠

급감도 느껴진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심장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2L와 3L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각각 직렬 4기통과 6기통으로 구성된다. E클래스 쿠페와 C클래스 쿠페 주력 모델을 모은 셈.

당연하게도 크게 업그레이드 했다. 3L 엔진인 450 트림을 기준으로 M 256M, E클래스 쿠페보다 최고 출력이 20마력 높는데 연비도 2km/L 가까이 개선했다. 심지어는 저공해 차량 2종 인증을 받아 주차료 감면 등 혜택까지 더했다.

2L 가솔린 엔진 역시 종전 C클래스 쿠페보다 토크를 더 끌어올렸다.

주행 감성도 E클래스와 C클래스 쿠페를 합친 듯 했다. 목직한 E클래스 쿠

페 느낌이 남아있지만, 조향이나 가속력은 조금 더 가볍고 경쾌했다.

특히나 고속에서 안정성이 매력있었다. 엔지니어링 패키지에 있는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과 '리어 액슬 스티어링'으로 필요에 따라 차체 세팅을 바꿔준다. 목직한 차체를 바닥에 잘 붙여주는 느낌이었다.

럭셔리 세단급 답게 편의 기능도 가득해서 정체 구간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탑재, 설정만 해주면 알아서 잘 움직여준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순정 내비게이션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었다. 추후 순정 내비게이션도 티맵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란다.

3세대 MBUX는 인포테인먼트 시스



CLE 실내는 매우 넓고 고급스럽다.

템을 더 진화시켰다. 음성 인식 기능은 조금 더 정확해졌고, '무틴' 기능을 새로 지원해 개인화도 강화했다.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게임까지 구동 가능, 운전자 행동을 인식하는 '인테리어 어시스트'도 익숙해지면 유용하겠다 싶었다.

여러 모델을 합한 탓에 CLE만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이다. '스포츠킴' 처럼 폭발적인 성능도 아니고, 아무리 넓어도 2열에는 가방이 나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기도 한다. 벤츠는 상반기 오픈카인 CLE 카브리올레도 출시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지만, CLE라면 새로운 기회를 노려볼만하겠다 싶다. AMG까지 더해지면 세단형 쿠페 풀 라인업을 재정의할 수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MWC 2024

KT, 차세대 네트워크·AI
혁신 통해 미래생활 선포

KT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통신 사업 역량에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IT)을 더한 'AICT'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KT는 지난달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폐막한 'MWC 2024' 전시회에서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 K T'를 주제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AI 혁신기술을 통해 달라질 미래 생활을 선보였다.

3일 KT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마츠그란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마존웹서비스(AWS), 퀄컴, 에릭슨,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등 모바일 산업 관련 주요 인사가 방문했다.

'NEXT 5G' 존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을 위한 항공통신망 구축 기술과 양자암호, 전력 절감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고, 'AILIFE' 존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된 AI반도체, 소버린 AI 사례 등 초거대 AI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글로벌 소통 행보도 성과를 얻었다. 국내 유일한 GSMA 보드 멤버인 김영섭 대표를 한국 통신사 대표로 'CEO 보드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과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논의하고, 오승필 기술혁신부총장(CTO)은 'CTOGTI서밋 키노트'의 연사로 참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ngia_tea@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밸류업 실망감에 숨고르기

“이익 모멘텀, 당분간 좁은 박스권 흐름 예상”

이달 시장 변곡점 될 이벤트 많아
FOMC 결과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저항선인 2700선 돌파 가능성
슈퍼화요일, 美 대선 윤곽 지표
이후 불확실성 시장 가격 반영
주춤 등 저PBR주 상승동력 잔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저주가순자산 비율(PBR)주가약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코스피는 지난주 4거래일 중 3거래일 간 하락세를 탔으며, 돌아오는 주에도 특별한 상승 압력없이 박스권 흐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0.24% 하락했다.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로 인해 기대감이 올랐지만, 오히려 시장의 아쉬움을 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달 동안 코스피지수는 5.81% 상승했는데, 대부분 저PBR주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밸류업 실망감과 함께 증시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다만 3월에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이벤트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3월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말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저PBR 업종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인 점은 하방



코스피가 전 거래일(2652.29)보다 9.93포인트(0.37%) 내린 2642.36에 장을 마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3.39)보다 0.43포인트(0.05%) 하락한 862.96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3.6원)보다 2.1원 떨어진 1331.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경직성이 개선되면서 지수 하단레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지수 저점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잠재력도 높아지는 편이기에 3월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2700선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준의 상반기 정책 전환 전망, 양호한 주요국 경기 모멘텀, IT 중심의 견고한 실적 전망 등을 감안하면 하방 경직성도 높을 것”이라며 “주가 조정이 온다면 다른 자산군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나기보다는 증시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FOMC 이전까지 금리 조정 국면이 유지될 것”이라며 “당장의 지수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나 이익 모멘텀이 정제된 환경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

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5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비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날로,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윤곽을 잡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선출이 확정되면, 대선 불확실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이라며 “슈퍼 화요일 이후부터 대선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되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같은 날 미국 2월 공급관리 협회(ISM)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되며, 중국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최초로 공개된다.

중국이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월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들 역시 연준의 FOMC 등을 변수로 꼽고 있지만, 3월 주주총회 시즌, 4월 총선, 6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 등 저PBR 테마주의 상승 동력이 아직 잔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육식 가리기’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트리거가 된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며 “외국인 자금은 ‘저PBR주’ 위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관심종목

한전, 역대실적 다시 한번?
기대감에 목표가 줄상향

최근 반등에 성공한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급 실적이었던 2016년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을 올릴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의 주가는 2만4800원으로 지난 1월 19일 저점(1만7970원) 대비 무려 38% 급등했다.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확대됐다. 올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63억원, 541억원을 순매수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8조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22조5186억원, 영업이익은 1조884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이다. 세 차례 전기료 인상과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하락한 것이 실적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는 올해 한국전력이 연간 실적에서도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하나증권은 2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현대차증권(2만원→3만2000원), SK증권(2만1000원→3만원) 등도 목표주가를 높였다 /원관희 기자

뉴욕증시, ‘AI 열풍’에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주 나스닥지수 1.6만선 기록
파월 발언·고용 지표 발표 앞두고
강세장 이어질까... 관심 쏠려

최근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인공지능(AI) 관련주 열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스닥·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번 주(3월 4일~3월 8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나스닥지수는 증가 기준 1만6000선을 기록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주일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 3만9131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인공지능(AI)·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펼쳐지면서 지수 전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증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 미국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 AI 투자



뉴욕 월스트리트 모습. /뉴시스

열풍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등 대장주 외에 다른 반도체주와 기술주로도 번지고 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0% 이상 폭등하자, 반도체 회사 AMD의 주가도 5% 이상 뛰어 시가총액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제프 클라크 델 최고운영자(COO)는 “AI 서버 출하가 8억달러에 이르고, 주문량은 약 40% 증가했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여파로 델 주가는 약 32% 급등했다.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강세장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의회에 출석한다. 파월 의장은 6일 미 하원에, 다음 날인 7일 상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전의 발언과 대체로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연준은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등 주요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된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뜨거운 고용 시장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연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적당히 둔화한 고용 수치를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 집계 따르면 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21만명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에 기록한 상승세(35만3천명)보다는 훨씬 둔화한 수준의 고용 증가세다. 2월 실업률은 3.7%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 쪽에서는 브로드컴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됐다. 브로드컴 또한 AI 랠리를 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는 5일 미 전역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예정됐다. /원관희 기자

금감원

불법리딩방 61건 적발

금융감독국이 최근 6개월간 미등록 투자자문 등 이른바 불법리딩방을 집중 단속해 총 61건의 불법거래 정황을 적발했다. 불법리딩방은 허위정보로 투자회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행위에 회원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사·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低) 주가 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 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企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초읽기’

중기중앙회, 로펌과 TF 꾸려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 판단
내달 26일까지 심판청구 해야

김기문 회장
“중소 가능성 없으면 청구 안 할 것
사용자 너무 과도 처벌 받으면 안돼”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계가 염원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관련법 적용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놓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국내 ‘TOP 3’ 로펌 중 한 곳과 교감을 갖고 2월 말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3번째) 등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었다.

해당 로펌에는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원사무장을 역임한 거물급 인물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등 관련 준비를 위해 10여 명의 변호인단으로 현재 대응팀, 국회대응팀을 꾸려 놓은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을 놓고 위헌성 검토에 들어간 결과 충분히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중소 가능성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사용자(사장)가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법률가들 역시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과도한 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적용 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만큼 90일 이내인 오는 4월 26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 전체에 대한 ‘무산’ 시도는 아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법소원 청구에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본회 구성원이 50명을 훨씬 넘어 이번 헌법소원에는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상징적 측면과 헌법소원을 위한 비용 부담 차원에서 측면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

구에는 50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단체를 최대한 규합하되, 산업 분야도 전체를 아우르는 등 몸집을 최대한 부풀려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집회에 이어 향후 충청권, 영남권, 서울 등에서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이 과도하다는 것을 여론에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부 강경노조는 지하철도 세우고, 국가기간산업도 멈추게 하는데 중소기업계는 관련 집회를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집회 문화를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기술침해 손해 산정액 90% 지원

중기부, 소송준비 기업 등 대상 확대
소송 대리 변호사 신청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

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보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

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율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지난달 28일 ‘SPC GFS 인천물류센터’에서 안전기원제를 한 후 (첫줄 왼쪽 2번째부터)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한진 관계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SPC GFS 인천물류센터’ 본격가동

100억 투입, 상온·냉동 창고 갖춰

㈜한진의 신선 물류 인프라와 SPC의 운영 노하우가 더욱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됐다.

물류회사들의 물류센터가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유통에 발맞춰 고객맞춤형으로 탈바꿈하면서다.

3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천 중구 율미로 ‘SPC GFS 인천물류센터’에서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건립한 센터는 총 약 3만 2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약 5200㎡ 규모로 상온과 냉장 및 냉동 창고 시설을 다양하게 갖췄다.

이로써 향후 파리기게트와 파리크라상 제품의 보관과 분류 등 신선식품 물류센터 기능과 함께 서울 서부권과 인천 및 경기북부 등 약 550개 점포에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 거점을 광범위하게 구현하게 됐다.

SPC GFS 인천물류센터는 정장을 맞추듯이 고객사의 개별 니즈를 꼼꼼하

게 반영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창고 부지를 비롯해 규모와 레이아웃, 가동 조건을 고려한 투입 설비와 운용까지 ‘BTS(Build-To-Suit)’ 방식으로 고객사와 함께 기획해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 안전을 위한 철골조 무지주 공법(PEB 공법)을 채용한 것을 비롯해 선도가 생명인 제빵류 중심의 상품들이 신선한 상태로 점포에 배송될 수 있도록 한 항온항습장치, 밝은 작업환경을 위한 150룩스 이상의 조명 등을 갖추었다.

간선 차량 접안을 위한 차량 규격별 도크(Dock) 설계, 은돌 휴게 공간 등 세부사항까지 SPC와 함께 꼼꼼히 협의해 구현했다. 이같은 고객맞춤형 센터는 2013년 경남 양산 ‘SPC 물류창고’와 2021년 ‘배스킨라빈스 물류창고’ 개설에 이어 세 번째다.

한진은 고객사와의 윈·윈 관점에서 기업고객 수요 환경에 따라 물류 창고 리엔지니어링, 맞춤형 물류창고 운영대행 등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승호 기자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환급

중기부, 2023년 이전 개업자 대상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

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소진공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령자의 재기를 도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한 폐업공제금 수령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취업·재창업 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해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줄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초격차 기술연구 시설·장비에 1910억 투입

산업부, 30개 과제 1차 공고
과제당 5년간 최대 100억 지원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구축에 올해 정부 지원금 1910억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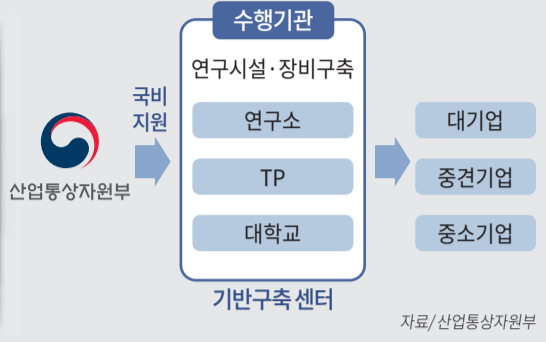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차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4일 30개 과제를 공고

한다. 1차 공고에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 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

축’ 등이 있다. 이밖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홀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수출 기업에 법률컨설팅 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 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중소·중견기업에 보증한도 확대 등 9350억 지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 하나·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수출 신용보증 등 지원한도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은행권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자금 이자경감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달 29일 하나·우리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935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원한다.

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보험·보증료 할인을 지원한다.

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원 상당 기금을 출연하고, 대

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중 신한·국민·농협 등 시중 은행들과 협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진욱 무협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은 “지속되는 3고 현상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무보

근로복지공단 휠체어컬링선수권 참가자 수리·안전 점검 센터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재활공학연구소가 지난 2일 강릉컬링센터에서 개막한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참가자 휠체어 정비 및 수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2일~10일까지 열리는 4인조 혼성경기에 12개국 100명의 선수가, 10일~16일까지 2인조 혼성 경기로 진행되는 휠체어믹스더블컬링시합에는 2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재활공학연구소는 휠체어의 신규 개발과 성능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 센터를 소속 산재병원에서 7개소 운영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4인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산재 장애인으로 알려져 의미가 크다.

대회 기간 중 재활공학연구소는 각국 참가자들의 휠체어 브레이크 정비, 공기압 체크 등 경기용 휠체어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강릉컬링대회장에 ‘수리 및 안전 점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휠체어컬링.

/근로복지공단

화학물질 운송 누출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도로 화학사고’ 훈련장 “방재·확산 차단 훈련 가능할 것”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

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기후위기 해결 등 총추적 역할 수행”

환경부 차관 ‘유엔환경총회’ 참석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

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구성했다. 우리나라(제5차)를 비롯해 우루과이(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이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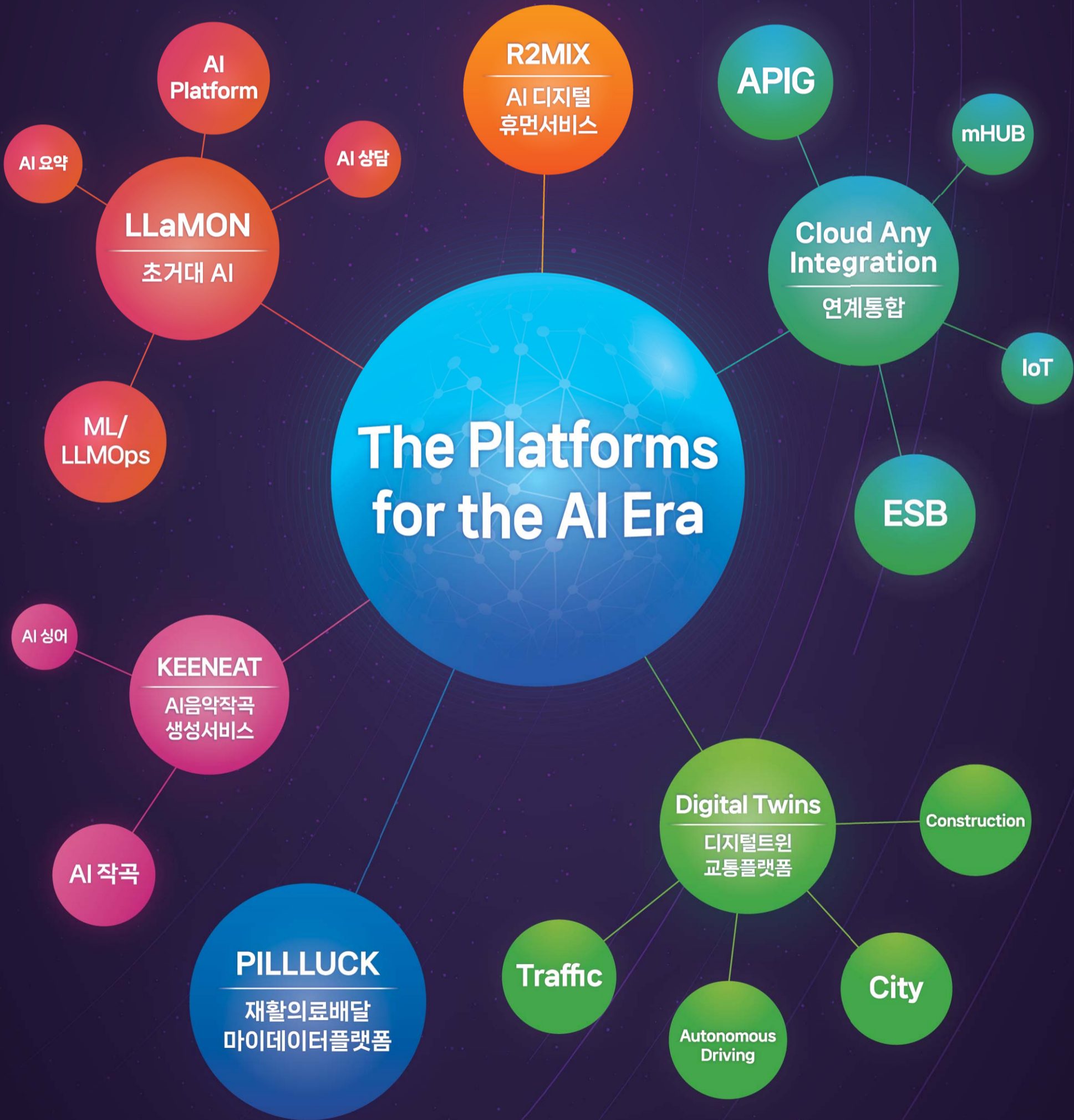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광주형통합돌봄, 전국 표준모델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연령·소득·재산 기준 두지 않아 추진 동시에 8750여명 시민 지원 UCLG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



광주시 지난해 12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 /광주시청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주형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광주형통합돌봄'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통합돌봄은 기존 노인·장애인 선별주의 방식의 돌봄제도를 확대해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만들어졌다.

지원절차는 본인을 비롯해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행정의 공공성·책임성이 강조됐다.

광주형통합돌봄은 추진과 동시에 8750여명의 시민을 지원했으며 설문에서도 '사회적 지지·안정감' 점수가 사전 검사 3.43점에서 사후 4.22점으로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 점수도 사전 2.68점에서 3.11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은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지원대상을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행정의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 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자체 권한 밖의 의료영역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광주형통합돌봄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했으며 긴급돌봄대상도 100%에서 120%로 늘렸다.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사지원은 20.5%를 인상해 시간당 2만원으로 설정했다. 집안에서 낙상예방 등 안전생활환경 서비스 지원액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의성군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의성군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국가시설인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 '통합 대(對)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 '의성군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드론 활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기반 구축 실증'을 수행한다. /경북=장영우 기자

하동군 청년농촌보급자리에 45억 투입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동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까지 국비 45억 원(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하동읍 비파리 일원(구 하동읍 부지)에 단독주택형 임대주택(26호), 보육실·헬스장·다목적실 등이 포함된 공동보육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진도군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 보건 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인력 등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를 하는 사업이다.

진료는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 ▲체지방 심전 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전남(진도)=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K-푸드 선도산업 육성 박차 농식품 제조·가공업에 326억 지원

제조·가공시설 구축사업과 농식품 수출 육성 사업 등 진행

경북도가 한류 붐 확산에 따라 K-푸드 선도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을 집중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에 174억원,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에 138억원, 전통식품·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14억원 등 326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제조·가공 시설 구축 사업' 예산 174억원은 지난해의 2.6배로 올해는 ▲창업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4곳 75억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8곳 77억원) ▲반가공품 생산을 촉진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2곳 22억원) 등에 지원된다.



지난해 6월 8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수출 농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 육성 사업' (138억원)으로는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지원' (53곳 62억원) ▲안전한 농식품 수출을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 (49억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14억원) ▲FDA 등 해외인증 취득,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등(13억원)이 진행된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대구 동성로, 청년버스킹 성지로 도약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

대구는 청년예술인 중심의 지역 대표 공연공간 조성으로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동성로 청년버스킹'이 사업형태와 규모를 확장돼 펼쳐진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참가팀은 4월부터 11월까지(휴식기 8월 제외) 동성로 28아트스퀘어, 관광안내소 앞에서, 매주 목·금·토 60여회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으로 동성로에서 청년들과 호흡하게 되며, 우수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내외 청년으로 구성된 팀 또는 개인으로 장르 구분 없이 거리공연이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총 50여개의 참여팀

이 선정된다.

참가팀으로 선발된 청년버스커에게는 연간 3회 이상의 공연 기회와 소정의 참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최종 우수팀에는 시상금, 내년도 동성로 청년버스킹 오디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2024 동성로 청년버스킹 Free-ism'은 프리즘을 콘셉트로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교 음악동아리 참여, 청년예술가 포럼 개최, 동성로 상점가상인회와의 협력사업 개발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과 시민, 상인이 함께 공생·번영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중점과제 투표

온라인투표 통해 최종 2건 선정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13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투표로 2024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한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중점과제 2건을 최종 선정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우선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대상 사업은 ▲학생중심의 따뜻한 광주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글로벌 급식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

축을 위한 슬기로운 청렴인사사업 추진 ▲학교소음피해 관리·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다.

또 ▲부지활용을 통한 안전 통학로 조성으로 학생·시민의 복리 원원 실현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사교육 경감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함께하는 청렴정책 추진 등 7개 사업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남도, 양식어가 인력확보에 '빨간불'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전남지역 양식어가 인력 확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양식어가 고용 인력 절대다수가 필리핀 계절근로자들로 이뤄진 상황에 이들을 대체할 다른 국가 인력도 여의치 않아 수확기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중순께 국내 일부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른 인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일

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내 지자체간 단체와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3~5개월 가량 합법적인 고용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해에만 해당 제도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3만 4614명이 전국 곳곳의 농어가에 배치됐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담양, 무안, 진도, 해남 등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들을 받았다.

지난해 입국해 전남 양식어가로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총 1365명으로 이중 필리핀 출신이 1092명을 차지해 80%에 이른다.

/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서면심 의 등의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K-제과’ 해외서 승승장구... 글로벌 생산라인·점포 확대

롯데웰푸드 작년 매출 3조 클럽
영업익 1770억 전년비 31% 증가
인도 ‘초코파이’ 3번째 라인 증설

오리온 매출 2.9조 1.4% 늘어
세전이익 5200억 ‘사상 최대’
인도 라자스탄 공장 생산라인 확장

크라운제과 영업익 285억 62% ↑

지난해 해외 사업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제과업체가 올해에도 해외에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현지 유통채널과 협업하는 등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푸드’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제품 생산량을 늘려 현지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3월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3007억원으로 3조 클럽에 입성했으며 영업이익은 1770억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오리온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9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고, 영업이익은 4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세전이익은 6.8% 성장한 52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롯데웰푸드와 오리온의 실적 호조는 해외 사업의 영향이 컸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해외 법인 매출액이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선데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다.



이창업 롯데웰푸드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롯데 인도네시아 하리아나 공장 내 롯데 초코파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웰푸드

해외 시장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크라운제과 역시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 크라운제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4347억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롯데웰푸드와 오리온은 인구 수가 14억명에 달하는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양사 모두 인도에 진출했으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제과 시장은 연 17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에서 ‘초코파이’ 세번째 라인을 증설하며 지속 상승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1월 인도 현지 법인을 찾아 하리아나 공장에 ‘빠베로’ 현지 생산을 위한 약 330

억원의 신규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

오리온의 경우 지난해 매출 2조9124억원 중 인도 법인에서 매출은 205억원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말 라자스탄 공장에 32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연간 1만2000t의 초코파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 브랜드 SPC 파리바게뜨와 CJ 푸레쥬르도 해외 점포수를 늘리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해외 점포 확대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 신축 및 확장 등에 나설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203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과 아프리카 12개국에 진출할 계획으로, 공장 준공 후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

아 등 기존 진출국은 물론 중동지역 할랄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생산을 전담한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신규지역인 필리핀에도 진출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현지 기업인 버자야 푸드 그룹(Berjaya Food), 미들 트레이드(Middle Trade)와 필리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PC삼립의 경우 미국 등 현지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중이고 파리크라상도 미국에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레쥬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푸드빌에 따르면 푸레쥬르는 최근 자카르타 인근 반둥지역에 신규 매장을 오픈해 전체 매장 수가 60개를 돌파했다. ‘수마르콘물 반둥점’, ‘빈따로 익스체인지점’ 등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8개의 매장을 오픈하는 등 출점 속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북미 지역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CJ푸드빌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훔카운티 게인스빌에 약 9만㎡ 규모로 연간 1억개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푸레쥬르 미국 신공장 설립을 발표하고 2025년 완공 계획에 있다. 2030년까지 북미지역에서만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 본점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 중 바이올리니스트 박예림의 무대를 관람하는 고객 모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한달간 ‘스프링 콘서트’

신세계백화점이 3월 한달간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를 열고 고객과 예술적 소통을 지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본점과 강남점,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Art&Science)에서는 봄꽃과 함께 피아노를 마련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클래식부터 재즈 공연을 선보인다.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즉석 공연(버스킹)부터 유명 아티스트들의 선율로 채워지는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는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CJ온스타일 올 봄 리빙 키워드 ‘H.O.M.E’ 4개 선정

CJ온스타일은 홈퍼니싱·인테리어·홈키친 등 집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 봄 리빙 키워드를 ‘H.O.M.E’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H.O.M.E’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High-end or economical(프리미엄 또는 실속) ▲Organic(친환경 리빙 제품) ▲Mobile live commerce(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Exceptional Tech(혁신기술로 삶의 변화를 가능케한 제품)이라는 2024년 리빙 핵심 소비 키워드도 함께 도출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CJ온스타일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이사·신혼·신학기 등 리빙 성수기를 겨냥해 ‘2024 상반기 홈리빙페어’를 개최하고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CJ온스타일은 이번 행사 기간 모바일 라방을 60회 이상 편성했다. 타카테고리에 비해 고가의 제품이 많은 리빙 특성상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데다 궁금한 점을 쇼호스트에게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어 고객 만족도도 높은 채널이다.

CJ온스타일은 이런 세분화된 고객 니즈에 맞춰 리빙 상품 포트폴리오도 고도화한다. 먼저 가성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메가리빙 브랜드와의 특집 행사를 대거 준비했다. 특히 오프라인 쇼룸이 있는 브랜드와 협업해 온·오프라인 멀티채널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가 돋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818 데킬라’ 韓 상륙... “공식 레시피 칵테일 맛보세요”

오는 7일까지 더 현대서울서 팝업
매일 4회 시음·교육프로그램 진행

세계적인 모델인 캔달 제너의 ‘818 데킬라’가 한국 최초로 공식 론칭하며 기념 팝업 행사를 개최했다.

오는 3월 7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더 현대 서울 지하 1층 메인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에서는 818 데킬라와 공식 레시피로 제조한 칵테일 3종을 소개하고 판매도 병행한다.

‘818 데킬라’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주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데킬라 시장에서 프리미엄 데킬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다. ‘818 데킬라’는 블랑코, 레포사도, 아네호, 에일리지브 등 총 4개 제품이 생산된다. 8년 이상 재배한 블루 아가베 100%를 이용해 만든다. 각 브랜드별로 오크통에 쪼개는 3주, 길게는 8년 가량 숙성과



818 데킬라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구매하고 있다.

정을 거친다. 팝업기간 동안 818 데킬라를 체험할 수 있는 시음·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매일 4회 개최되며 네이비 플레이스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정해진 예약 시간대에 방문하면 블랑코, 레포사도, 아네호 세 잔을 시음하게 된다.

시음존에 놓인 헤드셋을 착용하고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캔달 제너의 설명에 따라 시음하면 보다 풍성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블랑코는 오크통에서 3주간 숙성한 제품으로 달콤한 아가베 바닐라 시트러스와 열대과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레포사도는 오크통에서 3달간 숙성

과정을 거쳤다. 바닐라와 꿀, 카라멜, 과실 향이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마무리가 인상적이다. 오크통에서 1년 숙성한 아네호는 달콤한 아가베와 허브의 풍미를 자랑한다. 구운 견과류와 오렌지향이 입가에 퍼지면서 목직함 바디감으로 마무리된다. 오크통에서의 숙성 기간이 길어질 수록 진한 색을 띤다. ‘818 데킬라’ 가격은 10만원부터 10만원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팝업 행사장은 칵테일을 마시는 고객과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붐볐다.

‘818 데킬라’는 캔달제너가 2021년에 출시한 후 13개의 주류 시음대회에서 총 43개의 상을 받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유통은 국순당에서 진행한다. 국순당은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데킬라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전기차 충전요금 27% 할인

이브이시스와 ‘홈플러스’ 기간 이벤트

홈플러스가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창립 27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러스’ 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 전문 브랜드 ‘이브이시스(EVSIS)’와 함께 전기차 충전 요금 27%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다고 3일 밝혔다.

홈플러스와 이브이시스는 대형마트 등이 전기차 충전하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충전 장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창립 27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러스’ 기간 동안 홈플러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전기차 충전 요금과

지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이브이시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홈플러스 16개 매장에서 진행한다. 고객이 27% 할인을 적용받을 시, 급속 충전(340원/kWh 기준)은 248원/kWh, 중속 충전(300원/kWh 기준)은 219원/kWh, 완속 충전(250원/kWh 기준)은 183원/kWh에 충전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홈플러스 물방데이를 기념해 이브이시스 신규 가입 후 27kWh 이상 충전하는 고객에게 이브이시스 1만원권 충전권을 지급한다. 홈플러스 19개 매장에서 3회차에 걸쳐 진행하며, 1회차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영통점 등 7개 매장에서, 2회차는 21일부터 24일까지 김포점에서, 3회차는 28일부터 31일까지 영등포점 등 11개 매장에서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고지혈증 환자 증가... 제약업계, 신기술 치료제 개발 '집중'

치료제 시장, 연평균 13% 성장
알피바이오
 국내 최초 연질캡슐 형태 개발
JW중외제약
 '리바로젯' 누적매출 1000억 돌파



JW중외제약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 /JW중외제약

국내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제약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에 따르면 국내 전문의약품 지질조절제 및 동맥경화치료제 시장은 지난 2021년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 상반기에만 7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장 성장률은 2021년 14.3%에서 2022년 12.7%, 2023년 상반기 11.7%로 3개년 평균으로 보면 12.9% 가량 시장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에 뛰어드는 제약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미국 알피베라가 합작해 설립한 알피바이오는 최근 국내 최초로 연질캡슐 형태의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는 알피바이오와 품립무약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로, 신제품은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권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과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알피바이오는 고지혈증 치료제에 자사의 독보적인 연질캡슐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치료제는 국내 유일 유통기간 30개월을 갖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알피바이오는 초기 용출률을 타사 대비 최대 2.9배 가량 높여 빠른 효과를 구축하고 최대 30% 작은

캡슐사이즈를 선보이는 등 제품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알피바이오는 국내 제약 업계에서 연질캡슐 제조 기술을 세계적인 단계로 향상시킨 연질캡슐 선도 기업이다. 알피바이오는 오리지널 연질캡슐 제조법을 개발해 전 세계 관련 시장을 70% 차지한 미국 알피베라의 기술을 계승 및 발전시켜 '뉴 네오솔 공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JW중외제약도 관련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사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은 지난 2023년 12월 기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제다. 무엇보다 스타틴 제제 중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리바로젯'은 2021년 10월 출시 직후인 2022년 31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04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현재 올해

1월 기준 누적 매출은 1111억원이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리바로젯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54% 줄인다. 특히 스타틴 제제의 혈당 상승 부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문제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의료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2제 복합제인 한미약품의 '로수젯'은 올해 1월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1위 품목으로 올라서며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처방 매출을 넘어섰다.

'로수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2개 성분을 복합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로수젯의 성장 요인 중 하나를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로 뽑고 있다. 지금까지 로수젯을 이용한 임상 연구 15건이 SCI급 저널에 등재됐는데, 이는 스타틴 기반 복합제 중 가장 많은 임상 연구라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복합제 개발이나 제형 개발은 활기를 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 '루나', 새 브랜드 모델 사쿠라 발탁

국내외 뷰티 시장서 입지 확대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는 모델"



루나의 새 브랜드 모델 사쿠라가 '롱래스팅 톱 컨실러'를 활용해 결점 없는 피부를 연출하는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애경산업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국내외 뷰티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 확대에 나선다.

3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는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를 새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

다채로운 매력,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 생기 있는 에너지 등 사쿠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루나가 추구하는 '감각적이고 생기 있는 나를 만든다'는 브랜드 가치가 어울린다는 것이 루나 측의 설명이다.

사쿠라는 '루나'의 첫 아이돌 모델로 두터운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루나는 지난 2021년 '큐텐재팬', '일

본아마존' 등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했다. 2022년에는 일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로프트', '프라자', '도큐멘츠', '돈키호테' 등으로 판매망을 확장해 일본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선·쿠션 최대 40% 할인

이달 한달 간 전국 백화점서 진행
 오후·빌리프·더후 등 혜택 마련



LG생활건강은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를 통해 선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봄부터 강해지는 자외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은 자사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가 3월 한 달간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만 '선·쿠션 얼리버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백화점에 입점한 더후, 숄37°, 오후, 빌리프 등이 선 제품을 최대 40%할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공중 화장품 더후는 '공진향 진해윤링클 선'의 용량을 기존 대비 150% 늘린 75ml 대용량 제품을 선보인다. '공진향 진해윤링클 선'은 자외선 관리뿐만 아니라 주름, 영양, 탄력 관련 기능을 한 데 담은 제품이다.

자연·발효 뷰티 브랜드 숄37°는 '마이크로액티브 선 세럼'을 신규 고객에게 9900원에 판매한다. '선-어웨이 에이핏 선쿠드'를 포함해 마이크로액티브 선 세럼, 톤업 선 등을 구매하면 동

일 정품을 추가 제공하는 '1+1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숄37°가 새롭게 출시한 '선-어웨이 에어핏 선쿠드'는 수분산 자외선 차단 기술이 적용돼 피부에 얇게 밀착되고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갖췄다.

오후는 신규 고객에게 '데이실드 아쿠아 선스틱 투 고'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빌리프는 한정판 제품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UV 프로텍터 톤업 선스크린'과 '아쿠아 밤 선 세럼'을 각각 정품 2개로 구성한 듀오 세트를 기획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기반 고성장할 것"

지난해 매출액 2조1760억 달성
 영업익 6510억, 영업이익률 30%
 짐펜트라, 이달 중순 美 시장 출시



셀트리온은 2년 내 '짐펜트라'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셀트리온의 '짐펜트라' 제품 모습.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핵심 사업인 바이오시밀러를 기반으로 올해 본격적인 고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바이오·제약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공시를 통해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1760억원, 영업이익 6510억원, 영업이익률 3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엔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품목 매출이 축소되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2022년 대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개선됐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셀트리온이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우 2023년 매출은 1조453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1.6% 증가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품목별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렘시마' 정맥주사(IV)의 경우 2023년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했고 피하주사 제형인 '렘시마

SC'도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렘시마SC는 현재 유럽 22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4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유럽에 이어 북미 시장에서도 렘시마SC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렘시마SC는 올해 2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영증성 장 질환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은 인구수 대비 넓은 영토를 가진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자가 투여 방식의 렘시마SC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북미 의약품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아울러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하는 짐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 공급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28일 짐펜트라 초도 물량을 첫 선적했다. 짐펜트라는 운송 및 수입 통관, 도소매상 입고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미국 의약품 시장에 출시된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와 '허쥬마'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29%로 집계됐다. 또 트룩시마는 미국에서 30%, 허쥬마는 일본에서 64%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프라이마'와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한 '베그젤마'도 유럽 주요국에서 순조롭게 입찰 수주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견조한 판매와 함께 짐펜트라 등 신제품의 하반기 본격 처방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섬, '타임'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

2024년 F/W 파리 패션위크 참가
 '더 타임' 신제품 350종 공개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2024년 F/W 파리 패션위크'에 참가해 자사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 '타임'의 단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섬은 파리 16구에 위치한 복합 예술문화 공간인 '팔레 드 도쿄'에서 진

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 글로벌 패션 시장 공략을 위해 론칭한 별도의 컬렉션 '더 타임'의 신제품 350종을 공개했다.

더 타임의 2024 F/W 디자인 콘셉트는 '컨피덴셜 클럽'으로,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타임 특유의 심플하고 세련된 브랜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미를 중점적으로 부각한 디자인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통합물류협회, 신영수 회장 취임 (CJ대한통운 대표)

한국통합물류협회 제9대 회장인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사진)가 취임했다.



3일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산업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나 해결 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5기’ 활동

에코프로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5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에코브리지 5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 꿈 실현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에코프로의 사회공헌 추진방향에 따라 ▲봉사활동 ▲환경 이슈 취재 ▲환경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프로



중진공-VC협회,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맞선’

중진공은 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역량 강화와 벤처투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공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

아모레퍼시픽, ‘아리따’展 운영

아모레퍼시픽이 기업 정체성을 담아 개발한 글꼴을 소재로 한 문화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목소리: 아리따’ 전(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진행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부산 전시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아리따’ 글꼴 행사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리따 제작 과정, 글꼴별 특징,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낱말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대동문화재단 △미디어총괄본부장 최혁
- ◆내일신문 △편집국장 김종필

부음

▲김교식씨 별세, 안종진(동일에너지 대표이사)·홍성(휴킨스피부과 원장, 전 국군의무사령관)·종희(브레인 MRO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효열(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씨 빙모상, 김정애(휴킨스 스킨케어 대표)씨 시모상 = 3일 오전 3시,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41-550-7474

에버랜드, 푸바오 일반공개 종료

1155일간 550만명 교감… “출국 당일 환송행사 검토”

한 달간 비공개 상태로 이동 준비 “앞으로도 푸바오 응원해 주시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에버랜드는 3일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대중에 공개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스트리밍 방송도 공개한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생한 자이언트 판다다. 5만명이 공모해 이름을 지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육사들에 애교를 부리는 모습 등으로 사랑을 받아 1155일간 공개돼 550만명을 만나는 등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별을 위해 2주간 12만명이 판다월드드를 찾았으며, 대기 시간만 4시간이 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푸바오는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대중에 공개 마지막 날인 푸바오가 3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월드드에서 강철원 사육사로부터 유채꽃 선물을 받고 있다. /뉴스1

호연구 협약에 따라 48개월 이전에는 짝을 찾아 중국에 가야 한다는 국제 규정 때문. 이를 위해 4일부터 1달여간 비공개 상태로 건강과 검역 관리를 받고 이송케이지 적응 등 준비를 해야 한다. 이후 ‘푸바오 할부

지’로 불린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해 쓰촨성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에서 검역과 적응을 함께한다.

에버랜드는 다양한 이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소셜 미디어에서 푸바오 응원 이벤트로 1만건 이상 댓글을 접수, 판다월드드

입구에는 가로 4미터에 세로 2.5미터 대형 응원 메시지도 걸었다.

에버랜드는 4일부터 푸바오 특별 영상 상영회를 이어간다. ‘전지적 푸바오 시점’으로 약 25분 분량 영상을 매일 2회 에버랜드 실내 극장에 보여준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날 환송 행사를 검토 중이다. 건강 문제 등을 살펴 이상이 없으면 환송 자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강철원 사육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푸바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희 동물원장은 “중국 판다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푸바오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엔솔,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 선보인다

인터배터리 2024

이스즈 엘프 전기 상용차 전시 전고체 등 차세대 전지기술 소개

LG에너지솔루션이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혁신기술과 다양한 소재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및 신사업 등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드니켈(Mid-Ni) 파우치 셀, LFP ESS 셀, BMTS 기술 등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셀, 모듈, 팩 등이 장착된 이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2024’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스즈(ISUZU) 엘프(ELF) 전기 상용차를 전시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파우치형 CTP(Cell to Pack, 셀투팩)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회사는 실제와 유사한 크기로 제작된 자동차 목업(Mock-up)에 셀투팩 적용 배터리를 장착하여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셀투팩 기술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 팩 디자인이다.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함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파우

치형 셀투팩은 파우치 셀의 가벼운 무게 특성을 가져가면서도 팩 강성을 높이고 검증된 열전방지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팩을 구성하는 부품을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해 제조원가를 절감,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

이 외에도 LFP 표준화 전력망 ESS 라인업의 첫번째 제품인 JF1 D C-Link 및 주택용 ESS 신제품 en block S 등도 전시되며,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전지 및 리튬메탈전지 등 차세대 전지 기술도 소개되어 보급형부터 프리미엄에 이르는 LG에너지솔루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생생한 체험형 콘텐츠와 탁월한 전시 연출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아이오닉6, EPA ‘최고 연료소비효율 車’ 선정

(美 환경보호청)

현대차 롱레인지 후륜 140MPGe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2024년형 신차 가운데 연료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 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따르면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모델(18인치 휠)이 복합연비 140MPGe를 기록하며 ‘최고 연료소비효율 차’에 올랐다. 이로써 아이오닉6는 2023년형 모델로 인증받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PA로부터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았다.

MPGe는 미국EPA가 현재 사용 중인 전기차 연료소비효율 측정 단위로, 전기차 뒤에는 소문자 ‘e’가 붙는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이 모델의 연비는 2024년형 신차 평균 연비(28MPGe)와 비교해 5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퓨얼이코노미는 이 모델을 5년간 보유할 경우 평균 대비 약 6000달러(약 80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롱레인지 후륜모델(18인치 휠)을 비롯해 아이오닉6 모델 중 4개 차종이 상위 10위권에 포진했다.

일반형 후륜모델은 135MPGe로 3위를, 롱레인지 4륜모델 18인치

휠 모델은 121MPGe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롱레인지 후륜모델 20인치 휠 모델(117MPGe)은 7위에 올랐다.

기아 EV6 롱레인지·스탠더드 후륜모델(117MPGe)도 공동 7위에 랭크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116MPGe)는 8위,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후륜모델(114MPGe)은 10위에 자리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집계한 연료 효율 상위권 10위 안에 한국산 전기차 모델이 8개나 포함된 것이다.

앞서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모델은 지난달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가 공개한 전기차 주행거리 평가 결과에서도 1위를 했다. 이 모델은 1시간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1396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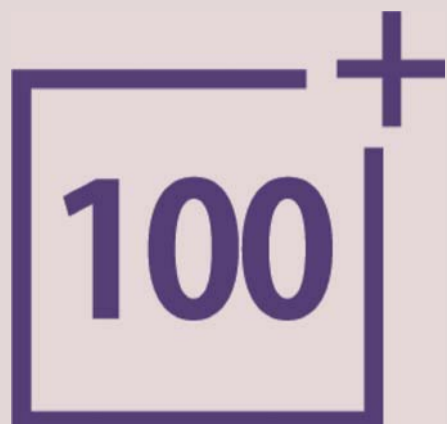
교원라이프 상조부문 소비자평가 1위

교원라이프가 ‘2024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KCAB)’ 상조 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통산 4회째다.

3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업계 평판을 상회하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과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앞세워 지난해 유지 회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업계 ‘탑티어(Top-Tier)’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선수급 규모도 2020년 5000억원(5020억원)에서 불과 2년여 만인 지난해 3월말 1조원(1조5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직 교원라이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마련해 고객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재건축 부담금 산정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증가분으로서 조합 등에 귀속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강남의 한 조합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 (종료시점의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격 + 부과 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x 부과율’

그런데 조합은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의 주택가격 및 ‘개발비용 등’이 잘못 산정된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모두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1) 조합은 “일반분양분 중 준공인가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세대들이 있었는 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은 실제 분양가격이 없으므로 0원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구청장이 이를 ‘실제 분양가격’으로 산정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제2심 법원은 “재건축이 익환수법의 취지, 실제 분양가격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동법이 부과종료 시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준공인가일 당시 분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실제 분양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한편, 조합은 “아파트 단지 외부 공공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됐으므로 그 부지의 가격이 개발비용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위 부지의 가격이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습

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조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부과처분 전에 도로 부지의 면적 및 도로 조성비용을 확인할 만한 계약서, 세금납부 자료, 감정서 등 증명자료를 갖춰 구청장에게 도로에 관한 개발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개발비용에 도로 부지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이 익환수법 제20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24조에 따라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될지언정,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신생아특례대출도 ‘대출’일 뿐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그건 대출이 아니냐?” 저출산 대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두고 입신을 준비중인 지인이 말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과 비교하면 낮은 금리이지만, 연 1%로 제공하던 연 0.5%로 제공하던 자신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란 의미다. 0.65명. 지난해 가입여성(15~49세) 1명이 가입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65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여성 한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혼인·출산시 증여금액 중

최대 1억원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시행한다. 다만 이 같은 정책엔 한계가 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갚아야 할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아파트도, 대출도 소용이 없단 소리다. 우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부모(배이비시터)가 충분치 않다. 얼마전 부영에서는 출산한 직원에 한해 1명당 1억씩 지급하며 화제가 됐다. 주변에서는 1억원을 받으면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 몇 개월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혼청년들이 혼자사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 결혼 비중을 늘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이와 같은 환경을 누구도 접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의 삶, 지금 육아를 접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허약된 저출산대책이 아닌 현실에 발을 둔 대책이 필요할 때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4일 (음 1월 2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벌을 무서워하고 꿀을 얻을 수 없다. 48년생 환영받는 초대 손님이 되니 기쁨이 넘치는 날. 60년생 우울한 마음을 배우자도 몰라주니 속이 상한다. 72년생 게으름 피우다가 기회를 놓친다. 84년생 힘이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 소** 37년생 흐르는 물처럼 편안한 하루. 49년생 조금만 행동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61년생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날. 73년생 남 탓하지 말고 나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85년생 배우자는 없어도 이상을 같이하는 책이 있다.
- 로랑이** 38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0년생 새로운 만남이 인연이 되어 나에게 행운을 준다. 62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여행을 떠나볼까. 74년생 어린 시절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86년생 도움 준 옛사람이 신세 갚으러 온다.
- 토끼** 39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살필 때다. 51년생 산에 오르고 보니 내려갈 일이 걱정. 63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으니 마음이 뿌듯하다. 75년생 먹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니 태양이 나타난다. 87년생 속삭임에 자각이 필요.
- 용** 40년생 겉보기는 멀쩡하나 속이 상하는 날. 52년생 약속을 하면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긴다. 64년생 계획은 세웠으나 일장춘몽. 76년생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가서 마음이 불편하고 가시방석. 88년생 설부는 결정은 손실로 이어진다.
- 뱀** 41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5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투자는 삼가야 구슬수가 없다. 65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하라. 77년생 남들이 부러워하나 작은 손해 볼 수. 89년생 청춘을 힘들게 살지만, 보람이 있다.
- 말** 42년생 오래된 친구만큼 보물이 없다. 54년생 생각만큼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불만은 없다. 66년생 우물은 옆에 있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78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가까이 온 것이다. 90년생 공부하는 만큼 늘고 있다.
- 양** 43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가면 결과가 좋다. 5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하루이니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 67년생 조직에서 기대가 크다. 79년생 옹편 상사의 인정을 받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91년생 집의 재건축 마무리가 들려온다.
- 원숭이** 44년생 집안 대소사에 사공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어렵다. 56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8년생 고집불통으로 외면한다. 80년생 구름이 가겠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니 희망을 품자. 92년생 유혹은 스스로 뿌리쳐라.
- 닭** 45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잘 풀린다. 57년생 어려운 일이 고향 선배의 도움으로 잘 해결된다. 69년생 자존심만 강하면 되는 일이 없다. 81년생 결과가 곧 눈앞에 있으니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자. 93년생 직장에서 성실하니 복이 온다.
- 개** 46년생 가까운 사람과 돈으로 불화를 주의. 58년생 어제의 근심이 오히려 일을 잘 풀리게 한다. 70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82년생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 좋은 결과를 보고 금전운도 좋다. 94년생 신혼 이별로 이어지니 말조심.
- 돼지** 47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뒤집힐라. 59년생 배우자와 이혼은 신중히. 71년생 구실 수가 있으니 행동조심 말조심. 83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베풀어라. 95년생 현상에는 늘 변화가 따르는 것이니 변덕스럽다고 단정하지 말 것.

김상회의四季

피싱 조심



이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다. 무슨 일인가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다. 문자와 함께 온 디지털 부고장을 눌러본다. 뭔가 이상하다. 장례식장이나 발인 일시 같은 부고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앱이 설치된다.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많다. 스미싱이나 피싱에 속은 것이다. 속임수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이다.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이다. 택배 쇼핑몰 은행 공공기관 건강검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자칫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 스미싱 피싱은 극악무도한 범죄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선량한 사람의 돈을 속임수로 가로채는 짓이다. 나이 드신분들은 특히나 디지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속기 쉽다. 자기도 모르게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스미싱 피싱은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기다. 옛날에는 사기꾼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기를 당한다. 제정신으로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돈을 빼앗긴다. 사기를 치는 그들이라고 보통 사람들과 유달리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니다. 명리학의 바탕에는 인과응보가 자리하고 있지만 다 털리고 나서 잡아본들 빼앗긴 돈이 나오겠는가. 연이어서 수옥살, 나쁜 운세라는 죄과의 틀에 자신이 갇히게 되니 우울증 사할까지 하게 된다. 범죄자들의 뿌리를 찾아 소탕하고 처벌을 시켜야 하지만 스미싱 피싱은 워낙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운기의 바닥으로 여겨야 하니 각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계속 알리고 홍보를 해 나가주기를 바랄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1	4	
		4	8	5	
8	4				3
5		4			8 2
		7	9		
7 4		8			6
3				2	4
	7 8	5			
	2	6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카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8	7	9	8	2	9	6
6	9	8	9	2	8	2	1	7
7	9	2	1	2	6	9	8	8
9	6	2	8	9	1	7	2	2
9	7	1	6	8	2	8	2	9
2	8	2	9	7	1	6	8	9
8	1	9	2	9	2	7	6	8
2	2	9	8	6	7	8	9	1
8	6	7	8	1	9	9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단녀 지원금 반대 등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불만 토로

서울시, 시정의견 청구 민원에 “올 출산·육아 경단녀 지원강화 자녀가점 신설 등 취지 명확화” “공중화장실 몰카 불안” 민원엔 “칸막이 시설개선 추진중” 답변



‘우먼업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서울시

경단녀 구직 지원금 반대, 화장실 몰카 불안 등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를 표방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제시하는 청구에 일부 남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민원인 A씨는 “내 피 같은 돈, 누구 맘대로 놓고 있는 여성들에게 퍼주냐”면서 “돈이 그렇게 남아들면 제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좀 쓰라”고 시의 여성 구직 지원금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놓고 있는데 돈을 준다? 요즘 세상에 경력단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여성, 여성 할 거냐.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세금, 제대로 해명해주길 바란다. 얼토당토않은 답변이면 제대로 해명할 때까지 움직일 거

다. 어디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놔다.

현재 서울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본 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토록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우먼업 인턴십’ ▲인턴십 참가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원(1회)을 지급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구직 지원금 수혜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금년도부터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가점을 신설하는 등 사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경단녀 지원금 반대 목소리뿐만 아니라, 구직 지원금 지급 대상에 왜 3040 남

성들이 포함돼 있지 않냐고 따지는 민원도 시에 접수됐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쪽에서 남성들이 서울시의 경단녀 지원 사업이 불공평하며 항의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때, 여성들은 불법촬영이 두려워 화장실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 거주 여성 B씨는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 그림자가 보이면서 카메라 소리가 나서 너무 당황해 소리 지르며 나왔다”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짹짹해서 이것

저것 좀 찾아보다 보다가 안심 칸막이 높이 설치 기준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나와 있는 글을 봤다. 요즘 불법촬영 때문에 안심화장실 등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칸막이 설치도 조금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거리를 5mm 이하로 좁혀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일반 휴대폰 두께가 7mm 정도인 점을 감안해 카메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법령 개정 이전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자치구 등 시설 관리기관에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자치구 등 관리부서를 독려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 개선안 마련 유지·용도지역 변화에 관리방향 제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시내 전체 주거지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해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제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 주거 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전용 주거 지역의 특성을 조사해 유지 또는 용도지역 조

정 여부를 점검하고,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전용 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증가, 도로·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점차 악화돼 용도 지역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 대다수다”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해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저소득층 초·중·고생 13만명에 ‘교육급여’

서울시, 2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3만여 명이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7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 단가가 초·중·고교 모두 평균 11.1% 상향됐다. 초등학교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연내 아파트 3만8000호 공급

내년엔 4만8000호, 2년간 8만6000호 늘어날 수 있다.

연내 서울에 아파트 약 3만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를 포함 앞으로 2년간 총 8만6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작년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5000호)보다 1만3000호가

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호) 아파트가 입주 시기를 올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의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2024~2025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은 이달 4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입주 전망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분양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년·월)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자료실→주택통계정보’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 동안 민간 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 전망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 전망’ 자료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9 | 해질 / 18:29

3월 4일 (월) 음력 : 1월 24일

수도권 날씨 -2 ~ -1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6/9, 동두천 -4/10, 가평 -5/10, 파주 -6/9, 서울 -2/10, 양평 -3/10, 인천 -2/8, 수원 -1/9, 용인 -1/9, 평택 -4/10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미국 “가자 휴전협상, 하마스 서명만 남아”
▲ ‘슈퍼 화요일’ 앞둔 트럼프, 아이다호·미주리 싸움이 /사진 뉴스스

▲ 홍해서 후티 공격받은 화물선 침몰... 생태계 피해 우려
▲ 美겔럽, “기혼자 행복지수 결혼 안 한 사람보다 높다”



▲ 러,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대응... 무기 추가 배치” /사진 뉴스스
▲ 크림반도 항구 인근서 폭발... “다리 폐쇄”



K-제과
해외서 승승장구
글로벌 점포 확대
니



Life

푸바오
일반공개 종료
한 달간 이송준비
L4



“외면·내면 찾는 컬러테라피... 색이 주는 힘 느껴보세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컬러드

김태연 대표

“색이 주는 힘은 굉장하다. 우리는 때때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컬러를 활용해 자신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고 무채색을 통해 본인을 감추기도 한다. 컬러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과 몸의 치료다. 일상생활 전부에 녹아있는 컬러의 저마다의 치유기능을 잘 활용해 마음과 몸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올 때다.”

김태연 컬러드 대표의 말이다.

김태연 대표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엔데믹을 맞아 우울, 강박, 공황장애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컬러드의 탄생 이유로 들었다.

컬러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컬러드는 지하 1층에는 스튜디오와 소통 공간, 1층 컬러푸드&카페, 2층 컬러테라피 및 퍼스널 진단, 3~4층 컬러 관련 교육 및 강습공간 등 한 건물에서 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컬러테라피 멀티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컬러테라피는 컬러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심리학에 활용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정신적인 요법이다. 최근 젊은 세대 층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테라피 종류 중 하나다.

김태연 컬러드 대표는 이 곳을 ‘컬러 드 리빙 센터’로 부른다.

현재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김 대표는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보니 컬러가 주는 강력한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컬러 테라피를 연구했다. 컬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한 데 모은 공간이 컬러드다. 이 곳은 컬러테라피, 퍼스널컬러, 컬러푸드, 컬러운동 등 컬러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황장애, 우울증, ADHD 등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나마 아로마테라피 등이 전부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아이টে이션 건 사실이다. 몇 없는 장소를 찾는 등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잠깐 기분이 좋아질 뿐, 내면이 치료되는 건 아니다. 컬러드는 이같은 점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태연 컬러드에 방문했다면 4층부터의 경험을 추천한다.



김태연 컬러드 대표.

우선 4층에서는 어떤 컬러 솔루션과 적합한지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이 진행된다.

그 다음 3층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과 컬러테라피를 통한 심리를 치유한다. 이곳에서는 본인만의 내면의 색과 외면의 색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나의 심리 상태를 알게된다. 그에 따른 전문가의 심리 상담까지 진행된다. 또 심리 치료를 위한 호흡법과 자가 진단법 등의 교육도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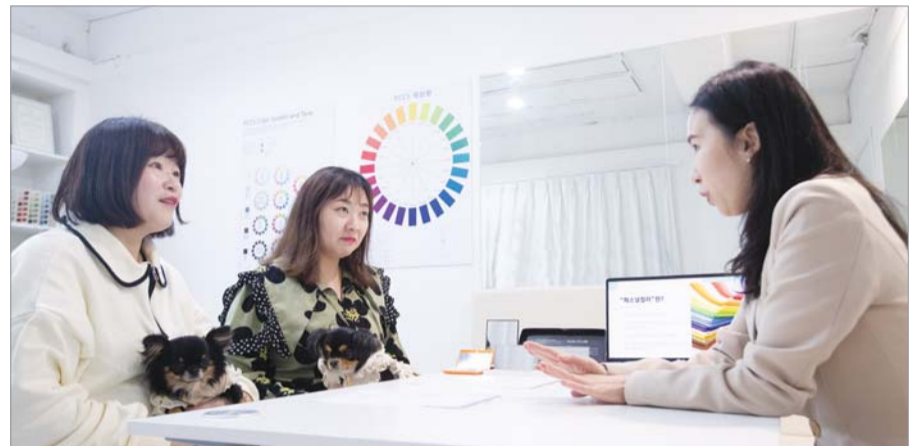
이후 1층에는 2·3·4층에서 받은 심리 치료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컬러푸드를 맛 볼 수 있다. 이후 지하 1층에는 본인의 퍼스널 컬러 의상과, 포인트 메이크업, 헤어까지 풀 셋팅 된 후 프로필 촬영이 진행된다.

이처럼 전 공간에서 본인의 내면과 외면 컬러, 이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 심리치유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곳이 컬러드다.

김태연 대표는 “컬러의 분야를 넓히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건물의 모든 공간, 가구 등 하나하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치유와 안정을 위해 색과 디자인 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굳이 테라피를 하지 않아도 공간에서 오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컬러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연인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준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와 아이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컬러를 통해 어울리는 직장도, 직장에서 맡는 역할, 대화 스킬, 표정, 자세까지 모두 컬러드의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특히 지하 1층에 위치한 소통



컬러드에 방문한 고객들이 컬러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있다.



신주영·이선화(왼쪽부터) 로다컴퍼니 공동대표가 인터뷰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컬러테라피 멀티복합공간 운영
심리치유, 퍼스널컬러, 컬러푸드 등
색 관련된 모든 것 경험할 수 있어
자존감 높이는 소통공간·스튜디오도

스타트업에 1층·지하1층 공간 제공
한국요소 담은 수제카라멜 팝업 운영

공간과 스튜디오를 컬러드의 대표 자랑 거리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색을 찾아 의상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용하게 본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찾을 수도 있다. 이 공간을 통해 불안정한 마음을 치료할 수도, 낮은 자존감을 적절하게 관리해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다. 놀랍지 않은가. 공간에서 이 많은 심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니...”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컬러드의 주된 목적이 공간을 통한 치유인 만큼 같은 방향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1층과 지하1층의 공간을 팝업 스토어도 제공한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 1층 컬러드 카페 옆 공간에는 수제카라멜 팝업스토

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팔도카라멜’은 로다컴퍼니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첫 번째 프로젝트다. 입구부터 고급진 색과 한국적인 요소를 담은 총 10종의 수제 카라멜의 대형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로다컴퍼니의 팔도카라멜이 컬러드의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의 방향성이 돋보였다.

이 선화 로다컴퍼니 공동대표는 “가장 한국적인 재료에 현대적인 디저트 형태와 감성을 더해 새롭게 재 해석한 디저트다. 한국의 문화와 감, 누룽지, 복분자, 쌀, 계피 등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을 통한 디저트에서 입안의 힐링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주영 로다컴퍼니 공동대표는 “카라멜 대표 상사 컬러는 한국 간식색채협회와 함께 각 재료의 효능과 연상 이미지를 통해 완성했다. 또 시각 적 이미지로 민화를 차용하고 가색했다는 데에 의미가 깊다. 재료에 따른 색의 의미와 더불어 민화 역시 각 그림의 상징하는 뜻까지 3가지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제품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연 컬러드 대표는 “컬러드라는 공간 안에서 다채로운 색채들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길 바란다. 나의 심리 상태는 색채를 통해 표출 되기도, 위로나 영감을 받기도 한다. 회색 도시, 바쁜 현대생활 등 일상에 갇힌 본인의 내면과 외면을 자연이 주는 혹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컬러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푸바오 마지막 출근길... 에버랜드 인산인해
▲두 달 만에 첫골 손흥민, “무척 기쁘다”
/사진 뉴시스

▲문체부, 문화재청 지휘 강화... 인사 등 장관에 보고
화이트데이에 웨딩시즌까지... 명품 가격 또 오른다



▲연대 의대 합격 수능 만점자 “책 많이 읽었다”
▲김하성·이정후, MLB 시범경기 맞대결 불발... 동반 결장
/사진 뉴시스